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63)(9/11/2021)

제 2 권 내면의 삶에 관한 권면들

제 6 장 선한 양심이 주는 기쁨, 1-2 절

고전 1:31 -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 48:22 -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눅 12:19 -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갈 6:14 -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요 5:44 -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1. 선한 양심의 증언은 선한 사람의 영광입니다(고전 1:31).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는 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아주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역경 가운데서도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악한 양심은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책망하지 않는다면, 달콤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선하게 행하지 않았다면, 기뻐하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죄인들은 참된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내면의 평안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사 48:22; 57:21). 그들이 “우리는 평안 가운데 있고, 그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며(눅 12:19), 감히 우리에게 해악을 끼칠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갑자기 임하여, 그들이 행하고자 계획한 일들이 다 한순간에 무로 돌아가고, 그들의 생각도 공허한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2. 환난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롬 5:3). 환난을 자랑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갈 6:14). 사람들에게 의해서 주어지거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짧고(요 5:44), 세상이 주는 영광은 늘 슬픔을 수반합니다. 반면에, 선한 사람들의 영광은 자신의 양심에 있고, 사람들의 입술에 있지 않습니다(고후 3:5). 의로운 사람들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들의 즐거움은 진리로부터 나옵니다. 참되고 영원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세상의 덧없는 영광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덧없는 영광을 구하고, 마음으로부터 멸시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칭찬이나 비난을 개의치 않는 사람은 마음에 큰 평안을 얻습니다.

말씀과 해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뜻을 말씀에 담아 주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선 참된 순종의 바탕에는 참된 믿음이 깔려 있어야 한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순종은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순종은 믿음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참되게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착한 양심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말씀에의 순종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진정한 순종은 말씀의 본질을 온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철저히 준수했지만, 율법 안에 녹아 있는 하나님의 뜻은 외면해 버린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강도높게 꾸지람하셨다. 그들의 문제 중의 하나는 착한 양심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들에게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행위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다(마 23:27). 예수님의 질책을 받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심각한 양심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착한 양심 혹은 선한 양심에 대한 바울의 언급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세 차례나 믿음과 선한(착한) 양심을 함께 가지라고 권면했다. **딤후 1:5 -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딤후 1:19 -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딤후 3:9 -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 원하는 성도는 참된 믿음과 함께 착하고 선하며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렇다면 착한 양심이란 무엇인가? 본문에서 “양심”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원어를 직역하면 ‘함께 알다’ 혹은 ‘함께 보다’로 말할 수 있다. 이 단어는 ‘보편적으로 보고 아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단어의 의미를 바탕으로 본문에서 말하는 “양심”을 이해하자면, “양심”은 기본적으로 나만을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심어 주신 도덕적 직관과 도덕적 자아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롬 2:14-15 에서도 인간에게 양심이 있음을 인정했다. **롬 2:14-15 - 14.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믿음과 함께 착하고 깨끗한 양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도덕과 윤리적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서 작용한다. 믿음은 있으나 착한 양심은 없는 사람은, 믿음을 말하면서도 성결한 삶은 살지 않는 것이며, 믿음을 말하면서도 속임과 거짓과 부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반대로, 착한 양심은 있지만 참된 믿음은 없을 경우에는, 인간적 기준의 도덕과 윤리적 삶은 어느 정도 살 수는 있지만, 구원의 문제 뿐만 아니라 차원 높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수는 없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단순히 인간적인 도덕과 윤리를 실천하는 삶에 국한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도덕과 윤리를 실천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고차원적인 영역에 까지 이른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의 착한 삶은 물론이고, 인간의 구원과 온전한 회복을 지향하며, 세속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을 돕고 섬기는 착한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시면서도 부활과 죽음 이후의 세계와 영생과 천국을 말씀하셨다. 착한 양심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과연 이러한 예수님의 초월적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동시에

믿음은 있는데 착한 양심이 없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도로서의 사랑과 선행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을 같이 가지고 가야 한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반하는 삶을 살게 된다. 성령께서는 삶 속에서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시며 일깨우신다. 따라서, 언제나 나의 내면과 양심을 깊이 성찰하고 들여다 보는 사람은 양심을 자극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깨닫고 반응할 수 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양심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칭찬을 들을 것이며 삶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비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양심에 반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을 비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데, 성도라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을 깊이 점검하자. 동시에 우리 안에 심어 주신 양심의 문제를 아울러 깊이 성찰하자. 참된 믿음과 참된 양심, 이 둘은 같이 가야 한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참된 믿음과 착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2. 전쟁, 자연재해, 질병 등으로 큰 고통 속에 있는 세계 곳곳을 보살피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3. 한국교회에 진정한 회개와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깨끗함으로 거듭나 주님께 온전히 쓰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